

제15권 14호

2025. 7. 21~2025. 8. 3

하나로여겨된  
모두의금융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논단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 확률은?

이슈분석

시니어 산업 성장의 엔진으로 부상한 '에이지테크'

금융경영브리프

Santander, TSB은행 인수로 영국 3위 은행 등극  
자산 상한 해제, 웰스파고의 새로운 출발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글로벌 금리를 따라 올라갈 韓 금리  
외 환 : 반복되는 관세 불확실성, 원화에 부담  
부 동 산 : 대출 규제에 시장 위축 불가피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 인간

## 연구자는 사람<sup>+</sup>, 고객은 사람<sup>++</sup>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 집필진

#### 편집

|      |                |
|------|----------------|
| 연구위원 | 안성학(shahn0330) |
| 연구위원 | 김혜미(hmikim)    |
| 연구원  | 유승원(youth1)    |

#### 논단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상제

#### 이슈분석

|      |            |
|------|------------|
| 연구위원 | 안혜영(mith5) |
|------|------------|

#### 금융경영브리프

|     |                |
|-----|----------------|
| 연구원 | 서가연(gayeonseo) |
| 연구원 | 이예린(yerin.lee) |

#### 금융시장모니터

|             |                |
|-------------|----------------|
| 금 리   연구원   | 민현하(hyunhamin) |
| 외 환   연구위원  | 김영준(kimekono)  |
| 부동산   수석연구원 | 하서진(seojinha)  |

#### 금융지표

|     |               |
|-----|---------------|
| 연구원 | 서유나(yuna.seo) |
|-----|---------------|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제15권 14호

2025. 7. 21~2025. 8. 3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 01 | 논단      |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 확률은?                                                                    |
| 04 | 이슈분석    | 시니어 산업 성장의 엔진으로 부상한 '에이지테크'                                                         |
| 08 | 금융경영브리프 | Santander, TSB은행 인수로 영국 3위 은행 등극<br>자산 상한 해제, 웰스파고의 새로운 출발                          |
| 12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글로벌 금리를 따라 올라갈 韓 금리<br>외 환 : 반복되는 관세 불확실성, 원화에 부담<br>부 동 산 : 대출 규제에 시장 위축 불가피 |
| 18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br>해외 금융시장                                                                  |



## 스테이블코인의 디페킹 확률은?\*

이 상 제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스테이블코인은 상대적 가치 안정성 때문에 성장하고 있지만,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그 안정성 기반은 취약하다. 디페킹 원인은 거시경제 요인부터 시장구조, 심리적 요인까지 복합적이지만, 핵심은 고정가치 환매에 대한 신뢰이다. 가상자산 정책 기조의 전환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의 구체적 내용은 신뢰 확보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우선으로 하여 디페킹리스크와 혁신 잠재력 간 균형을 잡고 위험기반 차등규제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 :: 디페킹의 규모와 빈도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 화폐나 특정 자산에 연동하여 가치 안정을 추구하는 가상자산이다. 상대적인 가격 안정성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의 매개 수단과 가치저장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5년 7월 10일 현재 시가총액 USD 1백만 달러 이상 스테이블코인이 165개, 전체 시가총액도 USD 2,559억 달러를 넘었다(DefiLlama). 비용 및 속도의 우월성, 온라인으로 연중무휴 국경없는 접근성, 소액분할 지불 기능, 인도 대 지급(DVP)의 동시성 등 장점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생태계를 넘어 실생활 도소매 거래에서도 지급결제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스테이블코인의 디페킹 규모와 빈도는 고정가치를 추구하는 MMF에 비해 더 자주, 더 크게 가치에서 이탈하는 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약속한 1:1 고정가치가 이름만큼 실제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IRON(2021년), UST(2022년), USDR(2023년) 등 알려진 사례뿐만 아니라, USDT, USDC, BUSD 등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도 고정된 가치를 벗어난 적이 많다. Oefele외(2024)는 미국 달러에 페그된 주요 6개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2020.1~2022.12월 기간 일별 종가가 고정가치에서 0.25%이상 하락이 전체의 10%, 0.25% 이상 상승한 경우도 5%라고 보고하고 있다.<sup>11</sup> 최근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시가총액 USD 1백만 달러 이상인 스테이블코인 중 7월 11일 기준, 일중 디페킹 폭이 1%가 넘는 것만 31개(상승 16개, 하락 15개)이며 1달간 10% 넘게 변동한 것은 56개다(상승 27개, 하락 29개). 7월 10일 현재 시가총액 USD 775만 달러인 USDR은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Oefele외(2024), <https://doi.org/10.1016/j.jempfin.2024.101557>

유통시장 가격이 고정가치에서 82% 이탈한 18센트에 머물러 있다(DefiLlama). 고정가치로의 회복을 돕는 차익거래 기제가 상당 기간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스테이블코인의 완전한 가격 안정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안정 메커니즘은 불가능하다. 특히 약속한 고정 가치로 무제한 환매 허용과 대규모 인출 사태(run)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다.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은 안정된 고품질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이다.

## ❖ 디페깅 원인

디페깅 원인은 복잡적이고, 시장 불안 시 스테이블코인 간 반응도 다르며 고품질로의 도피 현상도 나타남

디페깅 원인은 복잡적이다. 수급 불균형, 유동성 및 환매 비용 외에도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적 요인, 가상자산 생태계의 사고나 상호작용,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 때문에도 촉발될 수 있다. 최근 연구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설계 요소뿐만 아니라 시장심리, 규제 불확실성, 운영상 문제점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특히 시장 불안 시 스테이블코인 간에도 디페깅 정도가 다르고, 안전자산 선호나 고품질로의 도피처럼 충격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환매비용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환매수수료가 높을수록, 또 신청부터 환매까지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매수요를 줄이고 디페깅을 억제하지만 이용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 ❖ 신뢰 확보의 핵심: 준비자산과 투명성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은 1:1 환매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며, 준비자산의 품질과 충분성, 투명한 정보, 발행자 건전성 등이 중요

궁극적으로는 원할 때 언제든지 1:1 환매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흔들리면 페깅 유지가 어려워진다. 준비자산의 품질과 충분성, 수탁기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발행자의 건전성과 평판 등이 중요한 이유이다. 준비자산 관련 정보의 공시 의무 규제는 2022년 들어 일본과 미국 뉴욕주 등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공시 내용에 대한 합의된 국제기준도 아직 없다. 미국 뉴욕주는 토큰 발행액을 초과하는 충분한 준비자산 상시 보유, 적시 환매(timely redemption) 절차 확립, 고유자산과 분리, 안전자산으로 운용, 매월 회계법인의 확인보고서(attestation report) 제출 및 공개 등을 발행자 의무로 규정하였다. Maex & Slavov(2025)<sup>2)</sup>는 준비자산과 적시 상환 능력 관련 7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투명성 지수를 개발하여 주요 10개 스테이블코인을 대상으로 투명성이 가격변동성, 일중최저가, 시가총액 증가 등에 긍정적 효과를 끼침을

[2] Maex&Slavov(2025), <https://doi.org/10.1016/j.jaccpubpol.2025.107309>

보였다. 원인 규명을 넘어 디페깅 발생 시기와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조기경보 모형이 개발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코인을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정책의 전환점

스테이블코인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준비자산을 연결 고리로 스테이블코인 충격이 금융시스템 전체 위기로 변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그동안 ‘목조르기 작전’(Operation Chokepoint 2.0)이라고 불릴 만큼 두 시스템 간 절연에 힘써 오다가 최근 가상자산 ETF 상장,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영업 허용 등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발행,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를 둘러싸고 통화주권 수호 등 시급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등 잠재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팽팽한 가운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안정성 유지와 신뢰 확보를 위한 발행자 요건, 준비자산의 규모·구성·표시통화, 가치평가 및 검증, 고유자산과 분리 및 수탁자 자격과 분산, 환매 청구권 제한과 환매 수수료, 정보 공시 및 내용, 규제 차익 방지 등의 구체적 규제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국제적인 표준도 아직 없다(BIS 2024). 영국 금융감독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방대한 분량의 시중협의문서를 발표하고 가치안정과 신뢰 유지를 위한 구체적 규제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FCA 2025). 우리나라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아 국내외 여러 가지 제약 하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최적의 해답을 찾아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유지와 신뢰 확보를 위한 구체적 규제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국제적인 표준도 아직 없음

## :: 위험기반의 균형잡힌 규제 체계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가치 안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높은 성장 문턱의 극복은 발행자 허가, 준비자산 규제, 환매청구권, 정보 공시 규제 등에서 철저한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다.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위험 기반 접근을 통해 차등 규제를 적용하고,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가면서 기술 혁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 시니어 산업 성장의 엔진으로 부상한 ‘에이지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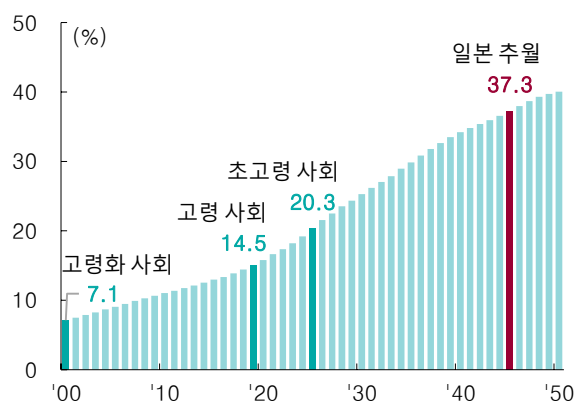
안혜영 연구위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내 시니어 시장 규모가 확대 중이며 고령층의 구매력도 높아진 가운데 고령친화 산업에 기술이 결합된 에이지테크의 부상으로 시니어 산업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에이지테크를 육성 중이며 기업들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에이지테크 기반 시니어 시장에 진출 중이다. 현재 국내 에이지테크가 시장 형성 단계인 만큼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품/서비스 개발과 사업화에 속도를 내 시장 성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 ■ 한국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특성의 新고령층이 소비층으로 부상

-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8년 고령사회 진입 후 7년 만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도달
  - 주요국 고령사회→초고령사회 도달연수: (韓)7년, (日)10년, (獨)76년, (佛)154년
- 2030년부터 단일 세대 중 최대 규모인 2차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진입하게 되면서 2045년 전후 일본을 추월하여 고령인구 비중(37.3%) 1위국이 될 전망
- 한편 2020년부터 고령층에 유입되고 있는 베이비부머는 경제력, 교육, 소비, 디지털 수용성, 사회활동 참여 등에서 이전 고령층과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임
  -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를 경험하면서 세대 간 간극이 커졌으며, 고령층 안에서도 이전 고령층과 新고령층(베이비부머)간 세대 간 특성차이가 큼
- 新고령층은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어 건강관리, 여가, 돌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니즈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국내 고령인구(65세+)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UN 세계인구전망보고서

### ■ 고령층 세대 간 특징 비교

| 특징           | 이전 고령층                  | 新고령층(베이비부머)              |
|--------------|-------------------------|--------------------------|
| 세대 특성        | 보수적, 수동적                | 수용적, 적극적, 미래지향적          |
| 경제력          | 의존적, 경제력 보유층 小          | 독립적, 경제력 보유층 多           |
| 소비관          | 검소, 절약                  | 합리적, 가치소비                |
| 소비 패턴        | 자녀 양육, 결혼 지원            | 자신에게 투자                  |
| 교육/디지털 활용 수준 | 평균 교육연수 8.7년/디지털 활용도 낮음 | 평균 교육연수 11.8년/디지털 활용도 높음 |
| 사회활동         | 소극적, 제한적 인간관계 형성        | 적극적, 넓은 대인관계형성           |
| 근로의지         | 낮음                      | 높음                       |

자료 : 통계청

## ■ 고령친화 산업에 첨단기술이 결합한 에이지테크가 부상하면서 시니어 비즈니스가 확장

- 최근에는 AI, IoT, 빅데이터, 바이오테크, 로봇틱스 등의 첨단 기술이 고령친화 산업과 융합되면서 기존 고령자 대상 제품 및 서비스가 에이지테크로 고도화
  - 고령친화 산업은 시니어를 수요자로 하는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개발, 제조, 제공, 유통, 판매하는 산업
  - 에이지테크는 시니어를 수요자로 하며, 시니어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첨단 기술 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
- 기존 고령친화 산업의 영역이 ‘돌봄’ 중심이었다면 에이지테크는 고령자의 편의성 향상, 건강관리, 취미/여가활동부터 돌봄에 이르기까지 ‘노년기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확장

## ■ 에이지테크 적용 가능 분야는 크게 웰니스, 헬스케어, 일상지원, 주거, 돌봄 등이 있으며 시니어의 건강주기에 따라 차별화된 비즈니스 수요가 예상

- 현재 고령친화산업 중 기술과 결합이 가능한 영역은 크게 웰니스, 헬스케어, 일상지원, 사회활동, 돌봄 등으로 구분되며 시니어 건강주기에 따라 수요 영역과 관련 비즈니스는 차별화
- 新고령층 중심의 액티브 시니어는 웰니스, 헬스케어, 취미/재취업 영역에서 안전함, 편리함, 건강관리,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한 비즈니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
  - 웰니스(스마트홈케어, 피트니스, 케어푸드), 헬스케어(항노화, 디지털 치료제), 일상 지원(반려/가사로봇, AI비서), 취미/재취업(여가활동 /취미 큐레이션, 맞춤형 여행 플랫폼, 재취업/창업 플랫폼)

## ■ 기술과 결합한 에이지테크로 확장된 시니어 비즈니스 영역

### 기존 고령친화 산업 (용품 및 서비스)



### 첨단기술



### Age(고령)+ Technology(기술)

#### Age-Tech로 시니어 Biz 확장

- 1 웰에이징, 웰니스**  
- 스마트홈, 웨어러블 디바이스, 피트니스, 케어푸드
- 2 헬스케어**  
- 노인성 질환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 피트니스, 원격진료
- 3 일상 지원**  
- 로봇, AI비서, 이동 지원
- 4 사회와 연결**  
- 취미/여가 플랫폼, 재취업/창업 지원 플랫폼
- 5 돌봄**  
- 돌봄 로봇, 간병 지원 장비, 간병 인력 매칭 플랫폼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 자립이 어려운 시니어의 경우 대부분 돌봄, 일상지원, 헬스케어 영역에서 고령자 돌봄 및 생활 지원, 노인성 질환대응을 목적으로 한 비즈니스 수요가 확대
  - 돌봄(돌봄/이동지원/정서지원 로봇, 복지용구, 돌봄인력 매칭 등), 헬스케어(노인성 질환치료제, 디지털의료기기 등), 일상지원(이동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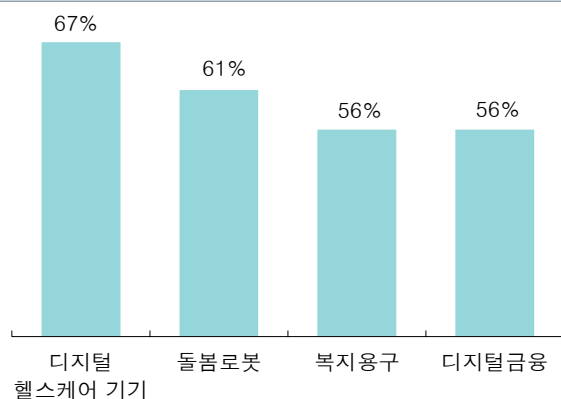
#### ■ 향후 에이지테크 산업의 성장이 시니어산업의 고성장을 견인할 전망

- 기존 시니어 산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요양서비스 중심이었다면 에이지테크의 등장으로 노년기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확대
- 또한 新고령층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며 디지털 의료기기, 기술과 결합된 복지용구의 이용 의향도 높아 에이지테크 시장 형성 시 수요 확보가 가능할 전망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시니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고령층의 구매력이 높아진 가운데 에이지테크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시니어 산업의 고성장이 기대
  - 국내 시니어 시장은 2020년 73조원에서 2030년 241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

#### ■ 기업들은 에이지테크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고 신사업으로 참여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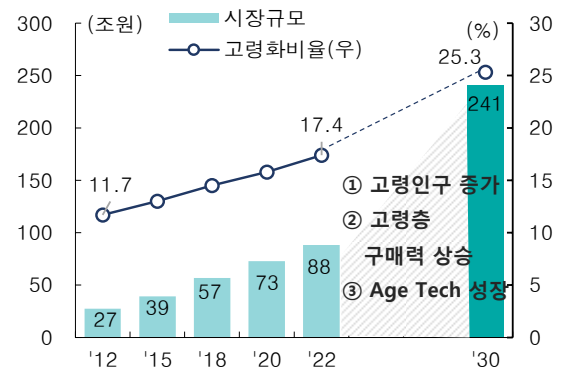
- 향후 에이지테크를 중심으로 시니어 산업의 고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부터 주요 대기업까지 시니어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
  - 초기 시니어 산업은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반면 최근에는 대기업이 앵커기업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며 동반 성장 중
- 디지털 헬스케어, 돌봄 로봇, 스마트 홈케어 등의 에이지테크 비즈니스는 대부분 시장 형성 단계로 기술과 아이디어가 중요한 특성상 주로 스타트업이 참여
  - e.g. 실비아헬스(인지 건강관리), 위로보틱스(웨어러블 로봇), 비바랩스(AI 운동)

#### ■ 시니어의 에이지테크 이용의향 수요 조사



자료 : 경희대학교 에이지테크연구소

#### ■ 국내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 전망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하나금융연구소

- 주요 대기업들은 본업을 기반으로 직접 시니어 대상 식품, 헬스케어, 로봇, 가전, 교육 등 영역에 진출하거나 관련 기업과 협업 및 투자를 통해 참여
  - e.g. 유아동 대상 교육기업인 교원, 대교 등의 시니어 교육서비스 사업 진출
- 보험 및 금융사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시니어사업에 참여 중이며 시니어 요양/주거 사업을 앵커로 금융(보험, 연금 등) 및 비금융 영역의 시니어 시장 공략을 추진

## ■ 정부도 고령화 문제 해결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에이지테크 육성을 적극 추진

- 정부도 초고령사회 진입과 고령화를 상층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및 돌봄 인력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
- 정부는 광범위한 시니어산업 중 시장규모와 파급효과가 크고 국내에 강점이 있는 ‘제품기술’ 중심의 5대 분야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
  - 한국형 5대 중점 에이지테크 분야: ①돌봄로봇, ②웨어러블 디지털 의료기기, ③노인성 질환 치료, ④항노화 재생의료, ⑤스마트 홈케어
- 이를 위해 5대 에이지테크에 대한 기술 투자 확대, 관련 규제 완화 및 실증 인프라 확대,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

## ■ 에이지테크 시장이 초기 형성단계인 만큼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한 시장 선점이 필요

- 에이지테크가 시니어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아직 시장 형성 단계이므로 국내 시니어 기업들은 ‘퍼스트 무버’로 시장에 진입하여 에이지테크의 성장을 주도하며 시니어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필요
-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니어 니즈에 맞는 에이지테크 제품/서비스를 개발과 대규모 실증을 통해 사업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 

### ■ 기업들의 에이지테크 참여 사례

| 분류   | 진출 분야                                     |
|------|-------------------------------------------|
| 대기업  | 매일유업 성인 영양식 브랜드 셀렉스 개발/투자                 |
|      | SKT AI스피커 ‘누구’ 기반으로 AI돌봄서비스 제공            |
|      | 대교 시니어 교육서비스(치매, 노쇠 예방 등) 제공              |
| 금융사  |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플랫폼과 IoT 가전을 연동한 패밀리 케어 서비스 운영 |
|      | KB라이프 도심형 요양시설 운영, 시니어라이프 플랫폼 구축          |
|      | 신한라이프 시니어 주거사업 추진                         |
|      | 하나생명 시니어 종합 돌봄 서비스 및 요양사업 추진              |
| 스타트업 | 실비아헬스 비대면 인지 건강관리 맞춤 솔루션 제공               |
|      | 비바랩스 Si기반 운동처방 시스템 제공                     |
|      | 큐라코 배설케어로봇 개발                             |

자료 : 언론자료, 하나금융연구소

### ■ 유망 에이지테크 제품/서비스에 대한 급여 지원 확대

| 주요 내용   | 현행                       | 개선                           |
|---------|--------------------------|------------------------------|
| 예비급여 확대 | AI돌봄로봇, 낙상알림 시스템 등 2종 지정 | (기존) +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의료기기 등 확대 |
| 급여 한도액  | 급여 한도액 초과제품 사용 불가        | 본인부담 시 급여한도액 초과제품 사용 가능      |
| 등재 절차   | 신청 후 검토                  | 직원등재 및 고령친화 우수제품 우선 검토 가능    |
| 품목확대    | 복지용구 급여용품 18종            | (기존) + 신기술 활용 품목 확대 및 절차개선   |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Santander, TSB은행 인수로 영국 3위 은행 등극

서 가 연 연구원

Santander 그룹은 영국 중견 소매은행인 TSB은행을 인수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번 인수로 Santander UK가 영국 3위 은행으로 도약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수익과 비용 측면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Santander 그룹은 신흥시장 비중을 줄이고 유럽, 미국 등 선진시장을 강화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 인수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국내 금융기관은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동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 Santander 그룹은 TSB은행 인수로 Santander UK가 영국 3위 은행으로 도약한다고 발표<sup>[1]</sup>

- '25.7월 Santander는 영국 TSB은행 지분 100%를 스페인 Sabadell 은행(Banco de Sabadell)으로부터 약 3.1조 유로에 인수하기로 발표
  - TSB은행은 영국에서 218개 지점과 약 5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중견 소매은행으로 Barclays 역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Santander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함
- Santander UK는 TSB은행의 인수로 영국 내 개인 당좌예금 기준 3위, 주택담보대출 기준 4위 은행으로 도약할 예정
  - Barclays UK, HSBC UK, NatWest Group, Lloyds Banking Group 등 네 개 은행이 영국 소매금융시장의 약 75%를 점유하는 Big Four 체제에 Santander UK가 도전

### ■ Santander UK는 TSB은행 인수로 영국 내 고객 기반 확보, 수익 및 비용 시너지 기대

- TSB은행 인수로 영국 약 1,900만 명의 개인과 기업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모기지자산 340억 파운드와 예금 350억 파운드를 추가로 확보
  - 인수 후 총자산, 대출금, 예수금 규모는 각각 18.0%, 18.4%, 19.3% 증가 예상
- TSB은행의 열악한 IT 시스템 문제도 Santander 그룹의 첨단 IT·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8년 TSB은행의 기술적 장애로 인해 고객들이 금융거래 이용에 불편을 겪은 바 있으며, 이는 8만 명의 고객 이탈과 3억 3,000만 파운드의 비용 부담을 초래
- 양사 통합으로 영업비용을 약 13%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4년 11%였던 ROE를 '28년까지 16%로 상향시킬 계획

[1] "Santander bolsters presence in UK with acquisition of TSB for \$3.64 billion", Reuters, 2025.07.01

## ■ Santander 그룹은 이번 인수로 신흥시장 비중을 줄이고 선진시장 중심 포트폴리오 강화

- Santander 그룹은 이익 변동성이 큰 남미 시장 비중을 줄이고, 유럽과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의 사업을 강화하여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추진
  - 브라질, 멕시코 등 핵심 남미시장에는 여전히 적극적이거나, 나머지 남미 국가에서는 자산 매각, 지분 축소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구조를 효율화
- '24년 말 디지털 은행 플랫폼 'Openbank'를 유럽 전역으로 확장, 고금리 예금, 자동차 금융 등 다양한 상품을 디지털 채널 중심으로 신규 유럽고객을 유치
  - '24년 유럽의 영업이익 비중은 46%, 대출금과 예수금 비중은 각각 55%와 64%로 유럽시장은 그룹이 주력하는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
- '25년 Santander는 영국시장의 수익이 저하되고 경쟁이 심화되자, 사업 철수 혹은 축소를 검토하였으나, TSB은행 인수로 영국 시장을 핵심부문으로 전환
  - '25년초 영국 내 영업점의 약 20%에 해당하는 95개소를 폐쇄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동 인수로 현지 영업 네트워크를 오히려 강화할 것으로 기대

## ■ 국내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의 성장성 둔화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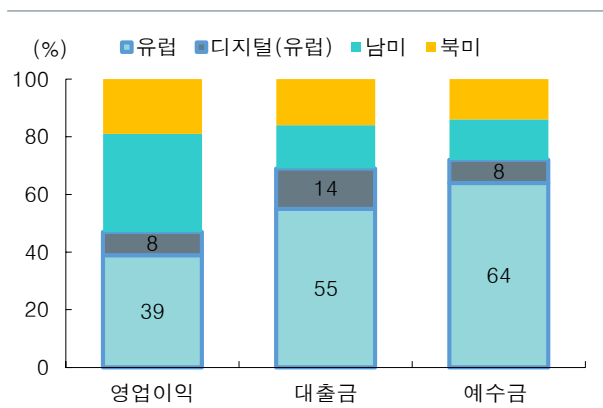
- 국내 은행은 최근 몇 년간 해외점포, 자산, 수익규모 등 모두 큰 폭으로 성장
  - 4대 은행의 해외자산은 '20년 136조에서 '24년 225조원으로 5년 사이 약 65% 증가하였으며, 해외수익은 동기간 6.8조에서 14.9조원으로 약 119% 증가
- 다만, 해외 사업이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신흥국 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에 진출하여 포트폴리오의 안전성과 성장성을 고민할 필요
  - M&A 전략은 조직 효율화, 운영비 절감 등 직접적인 시너지 창출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선진시장에 진출 시 동 사례를 참고할 필요 

### ■ Santander UK의 TSB은행 인수 효과

| 항목   | 합병 전<br>(억 파운드) | 합병 후<br>(억 파운드) |
|------|-----------------|-----------------|
| 총자산  | 2,550           | 3,010<br>(+460) |
| 대출금  | 1,960           | 2,320<br>(+360) |
| 담보대출 | 1,650           | 1,990<br>(+340) |
| 예수금  | 1,810           | 2,160<br>(+350) |
| 당좌예금 | 620             | 740<br>(+120)   |

자료 : Santander

### ■ Santander 지역별 영업이익 비중('24)



자료 : Santander

## 자산 상한 해제, 웰스파고의 새로운 출발

이 예 린 연구원

'25년 6월 미국 연준은 웰스파고에 부과한 자산 상한 규제를 해제하였다. 7년 동안 지속된 규제로 웰스파고는 성장이 정체되어 경쟁사와의 자산 규모 및 수익성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에 웰스파고는 리테일 및 자산관리 강화, 기업·상업 은행 확대 등 성장 가속화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재기가 가능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사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내부 통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및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 '25년 6월 미국 Fed가 부과한 웰스파고의 자산 상한 조치가 7년 만에 해제<sup>[1]</sup>

- '18년 2월 미국 연준은 유령 계좌 스캔들('16년) 등 웰스파고의 소비자 기만 행위로 '17년 말 자산 규모인 \$1.95조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 상한을 설정
  - 웰스파고는 '11년부터 5년간 고객 명의를 도용해 입출금·신용카드 계좌 200만개를 개설
- '25년 6월 연준은 웰스파고가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개선 등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징벌적 조치를 해제
  - '19년 이후 임원진 개편, 자동차·주택담보대출 관련 명령 등 13건의 명령을 수행<sup>[2]</sup>

### ■ 7년 간 자산 상한 규제로 웰스파고는 경쟁사와의 자산 및 수익 격차가 확대

- 웰스파고는 규제 영향으로 성장이 정체되며 경쟁사와 자산 규모 및 수익성 격차가 확대되고 은행 순위는 Citi뱅크에 밀려 4위로 하락
  - '15년부터 '25년 1분기 말까지 웰스파고의 자산은 연평균 0.9%로 성장하였으나, JP모건은 연평균 6.4%로 성장
  - '18년 웰스파고의 ROE는 12%, JP모건은 13%였으나, '24년에는 웰스파고는 11%, JP모건은 18%를 기록하며 수익성 격차가 확대
-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은행의 예금은 35% 이상 증가하고 '18년 이후 JP모건은 60%, BoA는 40% 이상 성장하였으나 웰스파고는 4천억 달러의 예금이 이탈
- 웰스파고는 자산 규모 제한 기간 동안 수익성 유지를 위해 저마진 자산을 줄이고 CIB 자문, 자산 관리 등 수수료 사업에 집중하며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노력

[1] "Wells Fargo's Asset Cap Is Lifted - What Happens Next?", US NEWS, 2025

[2] "Wells Fargo moves closer to lifting asset cap after US regulator closes consent order", Reuters, 202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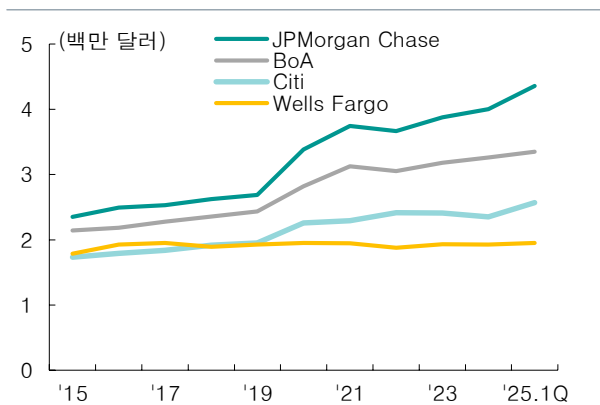
## ■ 웰스파고는 자산 상한이 해제됨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성장 가속화 계획

- 미국 북동부 지역 중심의 지점 리노베이션 및 신규 개점 등으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지점 네트워크 기반의 리테일 금융을 강화할 계획<sup>[3]</sup>
  - 사업 효율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을 축소하고 신용카드 대출을 확대
- 독립 투자자문가 채널인 FiNet을 구축하고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사와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중견 기업 대상 맞춤형 대출 및 솔루션 제공에 따른 수수료 기반 확대와 상업용 부동산, 대기업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대출 자산 확대로 자산 성장을 추진
  - 금융 및 재무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 बैं킹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중소기업 대상의 기술 금융 사업 강화를 위해 인력을 충원 중
- 웰스파고는 자산 상한 제한으로 위축되었던 트레이딩과 투자 은행 부문을 정상화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회복할 계획

## ■ 국내 금융사도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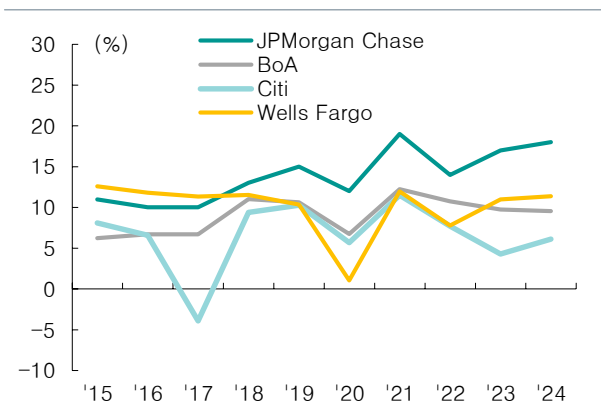
- 7년 만의 자산 상한 해제로 웰스파고는 전환점을 맞이했으나, 소비자 신뢰 회복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향후 귀추가 주목됨
- 국내 금융사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 신뢰 형성과 내부 통제 및 규제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및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 

■ 美 4대 은행 자산 변화 추이



자료 : Bloomberg

■ 美 4대 은행 ROE 추이



자료 : Bloomberg

[3] "Wells Fargo Is Leaning Hard Into Branches Again - And With a Fresh Take", The Financial Brand, 2025.06

## 금리: 글로벌 금리를 따라 올라갈 韓 금리

민현하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美 감세법안 통과, 日 소비세 감세 가능성 등으로 재정 건전성 우려가 확대되며 상승했으며 韓 금리는 2차 추경 증액, 美 관세 불확실성, 글로벌 장기금리 상방 압력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7월 금통위는 정부 대책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효과와 對美 무역 협상 결과를 확인한 후 추가 인하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韓 시장금리는 외국인 매수세 둔화, 금리 인하 신중론과 글로벌 금리에 연동해 제한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 ■ 글로벌 금리는 美 감세 법안 통과, 日 소비세 감세 가능성으로 재정 우려가 확산되어 상승

- 美 금리는 TCJA 감세법안 통과로 美 재정 건전성 우려가 확대되었고 관세 發 무역 갈등 우려가 재부각되며 상승(7/18일 기준 韓·日 25%, EU·멕시코 30%)
  - CBO, 감세 법안이 향후 10년간 美 재정적자를 2.8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또한, 고용 지표 호조와 관세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물가 지표로 인해 美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금리 상방 압력 부과
  - 美 실업률/CPI 추이(%) : 4월 4.2/2.3 → 5월 4.2/2.4 → 6월 4.1/2.7
- 日 장기 금리는 보험사들의 장기물 수요 축소와 참의원선거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 가능성으로 소비세 감세에 따른 재정 우려가 확산되며 상승
  - 日 20년물/30년물 금리 추이(%) : 6월 말 2.35/2.92 → 7.15일 2.63/3.16

### ■ 韓 금리는 2차 추경, 美 관세 불확실성, 글로벌 장기 금리 상방 압력에 연동해 상승

- 2차 추경이 31.8조원 규모로 확정되며 하반기 월 평균 발행이 급증해 (‘ 20년 이후 월평균 발행규모 대비 6조원 이상 상회) 수급 부담이 가중될 전망
  - 하반기(8-12월) 평균 발행 물량(조원) : ‘ 22년 9.5 → ‘ 23년 10.5 → ‘ 25년(E) 16.6
- 美 상호관세가 8/1까지 유예(25%)되었고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관세도 남은 상황으로 무역 협상 이전까지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 금융 불균형과 대외 불확실성 이슈로 금리 인하 신중론이 대두되고 재정 이슈 및 무역 협상으로 인한 글로벌 장기 금리 상방 압력도 시장금리 상승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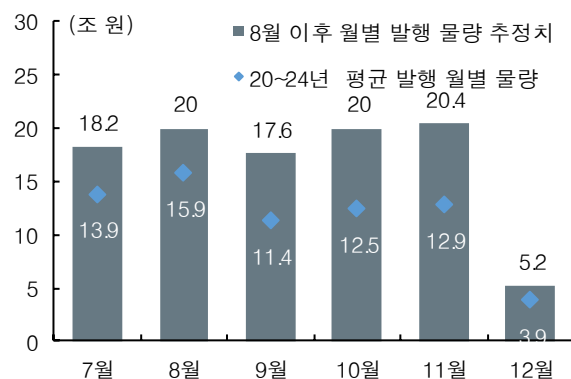
## ■ 7월 금통위, 가계부채 관리 효과와 對美 무역 협상 결과를 확인한 후 추가 인하 시사

- 금통위는 美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낮은 성장을 예상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급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2.50%)
  - 금통위원들은 추가 인하 가능성 유지했지만 무역협상/정부대책 확인 필요성에는 동의
- 총재는 현 가계부채 수준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수준으로 확대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강조
  - 또한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
- 한은은 美 관세 정책으로 인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확인한 후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성을 결정할 것을 시사
  -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과 금번 기준금리 동결이 추가적인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 제한이 확인되면 성장률 제고를 위한 추가 인하를 단행할 전망

## ■ 韓 금리는 제한적인 외국인 매수세, 금리 인하 신중론 등이 상방 압력을 부과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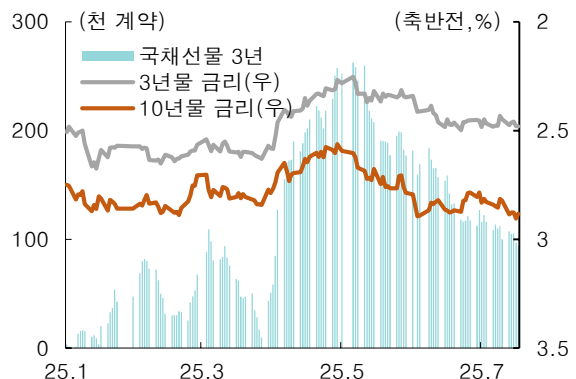
- 글로벌 금리는 美 연준 인하 기대감 축소, 美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속, 각국의 재정 건전성 이슈 등으로 상승 압력이 부과될 상황
- 韓 시장 금리는 한은의 금리 인하 신중론과 장기물 중심의 공급 물량 부담, 글로벌 금리 상방 압력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유지
-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현·선물 시장 내 외국인 순매수세 축소도 (외국인 채권 순투자(조원) : 5월 11.3 → 6월 3.6) 시장금리 하락 제한 요인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2.43%~2.55%, 2.80%~3.00% 범위로 전망 

### ■ '25년 하반기 발행 물량 추정치



주 : 7월 발행 물량은 국채 발행 계획을 통해 발표된 수치  
자료 : 기획재정부, 인포맥스, 하나금융연구소

### ■ 외국인 국채 3년 선물 순매수 및 3,10년물 금리 추이



자료 : 인포맥스, 하나금융연구소

## 외환: 반복되는 관세 불확실성, 원화에 부담

김영준 연구위원

원/달러 환율은 미국 지표개선, 무역 정책 불확실성 심화, 달러 실수요 우위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달러화 또한 무역 긴장 고조와 일본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한편 미국에서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관찰되면서 美 금리인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관세 등 트럼프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원화 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레벨 부담과 수출업체 물량 유입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원/달러 환율] 무역 전쟁 재개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로 원화 가치 하락

- 원/달러 환율은 중동 긴장 완화,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장중 1,340원대에 진입
  - 반기말을 맞은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과 중공업 수주로 인한 잠재적 달러 공급 부담 등도 환율 하락에 일조
- 이후 수입업체 결제 수요와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달러 환전 수요 등 역내 달러 실수요가 우위를 점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압박이 위험자산 선호를 위축시키면서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까지 상승
  - 7월 8일 트럼프 美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7개국에 대한 25% 상호 관세 부과를 통보하는 등 무역 전쟁을 재개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

### ■ [국제 환율] 달러화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 수위 확대 등으로 강세, 유로화·엔화 약세

-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부각되며 약세를 보인 후,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와 트럼프 美 대통령의 관세 압박 수위 확대 등으로 강세로 전환
- 유로화는 트럼프 美 대통령이 EU에 예상보다 높은 관세(3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러-우 전쟁 종결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약세 움직임
- 엔화는 트럼프 美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율 통보(24% → 25%)와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목받으면서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
- 위안화는 양호한 2Q 성장률(5.2%) 발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 추진 움직임 등으로 강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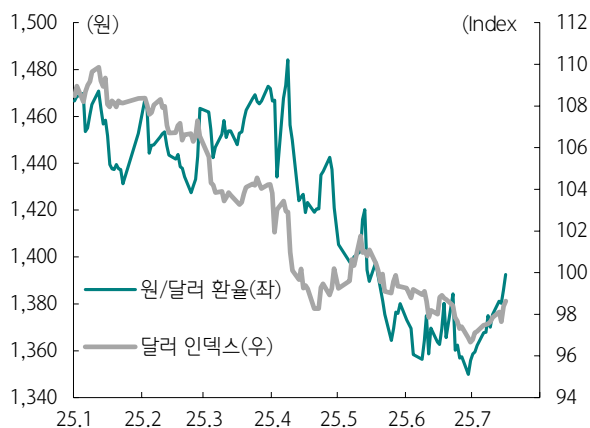
## ■ 트럼프發 관세 효과, 美 소비자물가에 나타나기 시작

- 美 6월 소비자물가가 2.7%(YoY) 올라 시장 예상치(+2.6%)를 상회한 가운데, 기업들이 관세 관련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포착
  - 커피, 가전제품, 장난감 등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에서 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관세發 인플레이션 압력이 관찰
- 관세 부과 전 확보한 재고가 소진되고 트럼프의 관세 업포가 TACO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비용 지불이 불가피할 전망
  - 트럼프가 각국에 서한을 보내 통보한 관세율이 최종적으로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6월 10% 수준에서 20%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
- 관세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 중인 파월 연준 의장과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증폭될 여지

## ■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흐름을 추종하는 가운데, 추가 상승 폭은 제한될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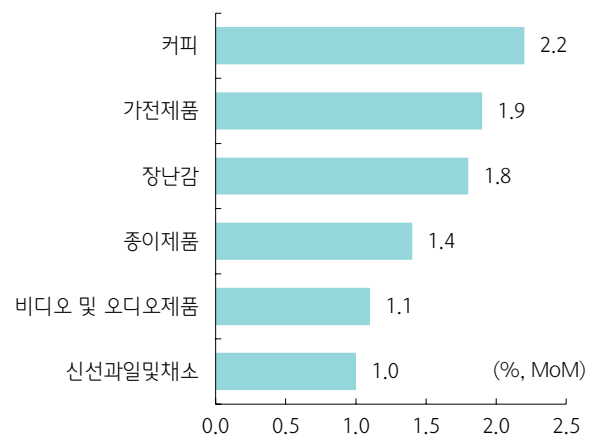
- 트럼프가 상호관세 적용 유예 기간으로 제시한 8월 1일 전까지 각국이 무역협상을 어느 정도 완료할 경우 안전자산 선호와 달러화 강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반면 주요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트럼프가 통보한 상호관세가 현실화되거나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 해임을 고려할 경우 안전자산 선호가 연장될 가능성
- 관세 등 트럼프 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원화 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레벨 부담,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추가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360~1,410원에서 주거래를 형성할 전망 

### ■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 : Bloomberg

### ■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의 미국 6월 물가 상승률



자료 : 美 노동부

## 부동산: 대출 규제에 시장 위축 불가피

하 서 진 수석연구원

'25.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서울 등 수도권의 상승으로 전월 대비 상승하였다. 6.27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매매 거래량 위축과 매매가격 상승폭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 수도권의 대기수요와 지방의 미분양 집중을 고려한 정교한 공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부동산 PF는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 연장 등으로 지속적인 연착륙을 유도할 전망이다.

###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서울 등 수도권 내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 전환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서울 내 주요 선호지역(강남3구, 마용성 등)과 경기 분당, 과천 등에서 상승하였으며 6.27 대책 영향은 미반영되어 전월 대비 상승 전환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MoM) : -0.02('25.4월) → -0.02(5월) → 0.14(6월)
-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아파트는 상승 전환 및 상승폭 확대되었으며 연립은 상승 전환, 단독은 전월 수준 유지
  - 유형별 상승률(% , MoM, 5월/6월) : 아파트 -0.03/0.17, 연립 -0.03/0.07, 단독 0.08/0.08
- 전국 전세가격은 입주물량 있는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서는 상승 거래되고 매물 부족이 심화되며 전월 대비 상승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 MoM) : 0.00('25.4월) → 0.00(5월) → 0.03(6월)

### ■ 6.27 대책 영향에 가격 및 거래량 모두 단기적으로 위축되어 지켜볼 필요

- 금리 인하 기대, 공급 부족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 전망 등이 지속되며 매수심리 지수는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 매매심리지수(전국/수도권/지방) : 113/118.3/106.2(5월) → 124.3/135.4/111.3(6월)
- 하지만 6.27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대출 한도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전세 갭투자도 차단되며 시장 위축은 불가피
  - 아파트 매매가격(% , WoW, 전국/서울) : 0.07/0.40('25.6.30) → 0.04/0.29(7.7) → 0.02/0.19(7.14)
- 이로 인해 당분간 매수심리 회복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매매 거래량은 감소하고 매매가격 상승폭도 축소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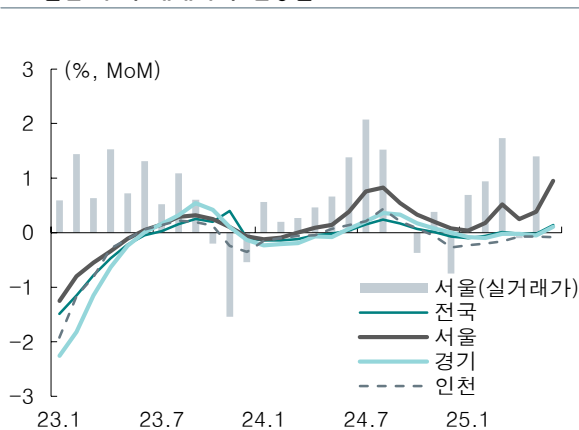
## ■ 수도권 대기수요와 지방의 미분양 집중을 고려한 정교한 공급대책이 필요한 시점

- 수도권 중심으로 준공물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 감소가 본격화되고 매물 또한 감소할 경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공급대책이 중요
  - 주택 준공 실적(만호, 전국/수도권) : 44/23('23) → 45/20('24) → 17/8('25.5월)
- 서울 등 수도권 대기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6.27 대출 규제로 주택 구매력 감소는 불가피해 수도권 거주수요를 고려한 정교한 공급정책 수립이 필요
  - 매수우위지수(전국/서울/수도권) : 31.4/59.6/37.7(6월) → 42.7/95.1/57.6(7월)
  - ※ 0~200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음
- 미분양 또한 감소세이나 준공 후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 중심의 미분양 해소 및 수요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 준공 후 미분양 재고(호) : 21,480('24.12월) → 27,013('25.5월)

## ■ 한편, 부동산 PF는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로 건전성 제고 노력이 지속될 전망

-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로 PF 대출 잔액은 감소 중이며 PF 시장 위축에 신규 취급액은 감소했으나 정상 사업장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연착륙 중
  - 부동산PF 대출 잔액(조원) : 132.1('24.2Q) → 130.3(3Q) → 128.1(4Q) → 120.1('25.1Q)
  - 부동산PF 신규 취급액(조원) : 15.1('24.2Q) → 16.4(3Q) → 17.1(4Q) → 11.2('25.1Q)
-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상승했으나 PF 대출 잔액 감소 및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며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며 연착륙 유도
  -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 3.56('24.2Q) → 3.51(3Q) → 3.42(4Q) → 4.49('25.1Q) 

###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종합주택 매매가격, 공동주택 실거래가)

###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6.27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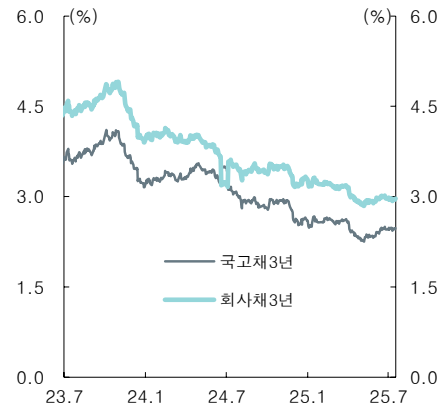
| 구분                    |        | 현행      |               | 개선방안        | 시행 시기 |
|-----------------------|--------|---------|---------------|-------------|-------|
|                       |        | 규제      | 자율관리 (은행별 상이) |             |       |
| 2주택자 이상/1주택자          | 비규제 지역 | LTV 60% | 수도권 0%        | 수도권 LTV 0%  | 6.28일 |
|                       | 규제지역   | LTV 30% | 규제지역 0%       | 규제지역 LTV 0% |       |
|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무주택자 포함) | 비규제 지역 | LTV 70% | -             | LTV 70%     |       |
|                       | 규제지역   | LTV 50% | -             | LTV 50%     |       |

자료 : 국토교통부

##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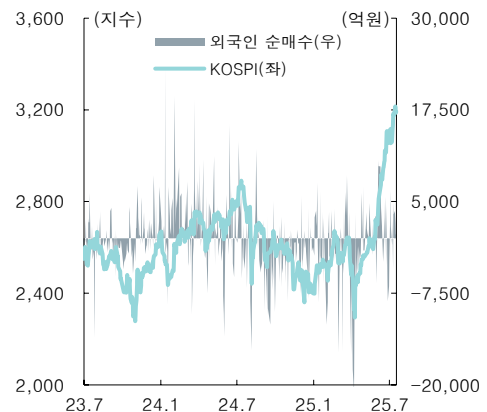
### 금리

| 단위: %  | 콜<br>(1일) | CD<br>(91일) | 산금채<br>(1년) | 회사채<br>(AA-, 3년) | 국고채<br>(3년) | 국고채<br>(5년) |
|--------|-----------|-------------|-------------|------------------|-------------|-------------|
| '23년말  | 3.91      | 3.83        | 3.69        | 3.90             | 3.15        | 3.16        |
| '24년말  | 3.33      | 3.39        | 3.01        | 3.28             | 2.60        | 2.76        |
| 6월말    | 2.57      | 2.56        | 2.52        | 2.96             | 2.45        | 2.59        |
| 7월 11일 | 2.51      | 2.52        | 2.47        | 2.94             | 2.45        | 2.60        |
| 7월 14일 | 2.51      | 2.51        | 2.48        | 2.96             | 2.47        | 2.65        |
| 7월 15일 | 2.48      | 2.51        | 2.48        | 2.95             | 2.46        | 2.64        |
| 7월 16일 | 2.50      | 2.51        | 2.49        | 2.95             | 2.46        | 2.64        |
| 7월 17일 | 2.50      | 2.51        | 2.50        | 2.97             | 2.48        | 2.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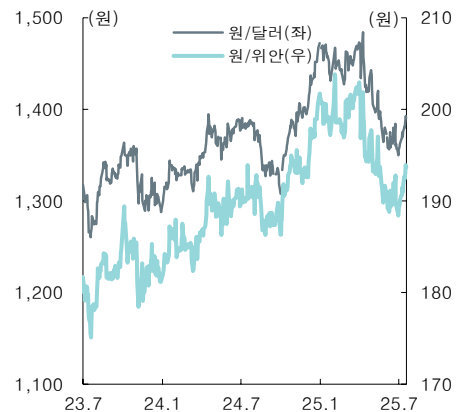
### 주가

|        | KOSPI<br>(지수) | 거래대금<br>(억원) | 거래량<br>(백만주) | 외인순매수<br>(억원) |
|--------|---------------|--------------|--------------|---------------|
| '23년말  | 2,655.3       | 94,189       | 460          | 7,017         |
| '24년말  | 2,399.5       | 53,155       | 304          | -1,207        |
| 6월말    | 3,071.7       | 133,338      | 464          | -6,513        |
| 7월 11일 | 3,175.8       | 133,421      | 465          | 3,256         |
| 7월 14일 | 3,202.0       | 115,656      | 444          | 3,713         |
| 7월 15일 | 3,215.3       | 122,388      | 420          | 2,142         |
| 7월 16일 | 3,186.4       | 113,288      | 531          | 534           |
| 7월 17일 | 3,192.3       | 153,654      | 425          | 472           |



### 환율

| 단위: 원  | 원/달러    | 원/100엔 | 원/위안  | 원/유로     |
|--------|---------|--------|-------|----------|
| '23년말  | 1,288.0 | 911.0  | 181.2 | 1,425.1  |
| '24년말  | 1,435.5 | 928.0  | 197.0 | 1,487.9  |
| 6월말    | 1,350.0 | 937.1  | 188.4 | 1,591.2  |
| 7월 11일 | 1,375.4 | 932.8  | 191.8 | 1,607.54 |
| 7월 14일 | 1,381.2 | 934.9  | 192.7 | 1,610.73 |
| 7월 15일 | 1,380.2 | 926.7  | 192.4 | 1,600.98 |
| 7월 16일 | 1,385.7 | 936.7  | 193.1 | 1,612.81 |
| 7월 17일 | 1,392.6 | 936.8  | 193.9 | 1,614.7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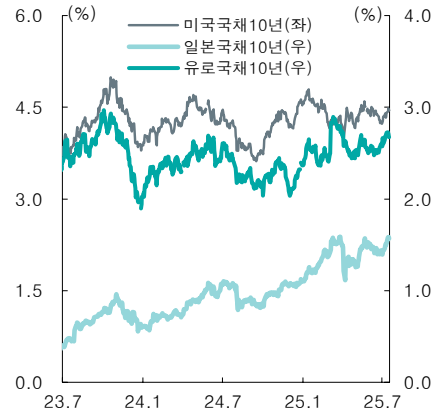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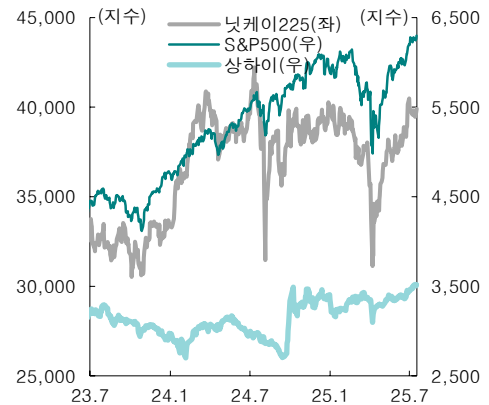
### :: 금리

| 단위: %  | 미국    |        |      |       | 일본    | 유로    |
|--------|-------|--------|------|-------|-------|-------|
|        | 실 효FR | SOFR3월 | 국채2년 | 국채10년 | 국채10년 | 국채10년 |
| '23년말  | 5.33  | 5.33   | 4.25 | 3.88  | 0.61  | 2.02  |
| '24년말  | 4.33  | 4.31   | 4.24 | 4.57  | 1.10  | 2.37  |
| 6월말    | 4.33  | 4.34   | 3.72 | 4.23  | 1.43  | 2.61  |
| 7월 11일 | 4.33  | 4.34   | 3.89 | 4.41  | 1.52  | 2.73  |
| 7월 14일 | 4.33  | 4.34   | 3.90 | 4.43  | 1.58  | 2.73  |
| 7월 15일 | 4.33  | 4.34   | 3.94 | 4.48  | 1.58  | 2.71  |
| 7월 16일 | 4.33  | 4.34   | 3.89 | 4.46  | 1.59  | 2.69  |
| 7월 17일 | -     | 4.34   | 3.90 | 4.45  | 1.57  | 2.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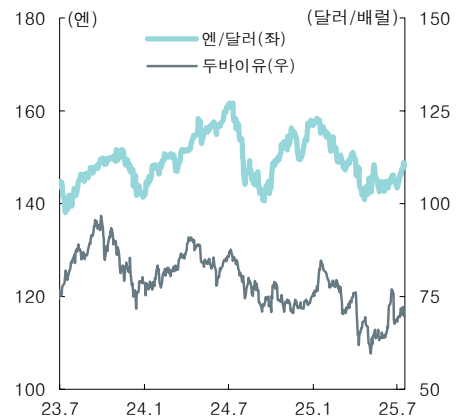
### :: 주가

| 단위: 지수 | S&P500  | 닛케이225   | 상하이종합   | Euro Stoxx |
|--------|---------|----------|---------|------------|
| '23년말  | 4,769.8 | 33,464.2 | 2,974.9 | 4,521.4    |
| '24년말  | 5,881.6 | 39,894.5 | 3,351.8 | 4,896.0    |
| 6월말    | 6,205.0 | 40,487.4 | 3,444.4 | 5,303.2    |
| 7월 11일 | 6,259.8 | 39,569.7 | 3,510.2 | 5,383.5    |
| 7월 14일 | 6,268.6 | 39,459.6 | 3,519.7 | 5,370.9    |
| 7월 15일 | 6,243.8 | 39,678.0 | 3,505.0 | 5,354.2    |
| 7월 16일 | 6,263.7 | 39,663.4 | 3,503.8 | 5,298.1    |
| 7월 17일 | 6,297.4 | 39,901.2 | 3,516.8 | 5,377.2    |



### :: 환율/상품

|        | 환율      |           |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             |
|--------|---------|-----------|-----------------|-------------|
|        | 엔/달러(엔) | 달러/유로(\$) | Dubai(\$/배럴)    | Gold(\$/온스) |
| '23년말  | 141.36  | 1.106     | 79.1            | 2,083.5     |
| '24년말  | 157.36  | 1.036     | 75.9            | 2,641.0     |
| 6월말    | 144.02  | 1.179     | 68.75           | 3,307.7     |
| 7월 11일 | 147.39  | 1.169     | 70.1            | 3,364.0     |
| 7월 14일 | 147.68  | 1.166     | 72.2            | 3,359.1     |
| 7월 15일 | 148.83  | 1.160     | 70.1            | 3,336.7     |
| 7월 16일 | 147.85  | 1.164     | 69.9            | 3,359.1     |
| 7월 17일 | 148.57  | 1.160     | 69.6            | 3,345.7     |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14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5년 7월 18일 인쇄

2025년 7월 21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http://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14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mailto:hanaif@hanafn.com)